프리즘

새해에 거는 무지개빛 기대

비단 지난해뿐 아니겠지만 작년 출판계의 상황은 '총체적 난국'으로 이야기된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셀러'를 낸, 넉넉잡아 50여개 출판사에게는 유전공학적 황금알을 뽑아낸 시절이었겠지만 적게 잡아 5천여개 출판사에게는 '대공황' 수준의 경기침체기였다는 것이다. 저울에 달려 폐지값으로 팔린 책들을 바다에 쏟아버렸다면 지도는 안 바뀌더라도 그곳 생태계에 약간의 변화는 생겼으리라는 자조의 표현도 들린다. 가히 "뜨는 해도 절망"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다

새해다.

새해엔 누구나 새해의 해가 뜨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리라. 심지어 보들레르 같은 금치산자도 새해의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다. "실행해서 무엇하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데."라고 그답게 결론짓기는 했지만 말이다.

금년 '책의 해'에는 이 '프리즘'란을 통해 분해되는 색들이 모쪼록 밝고 명랑한 파스텔조의 무지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출판계의 모든 종사자들이 하하호호 웃는 모습이 스케치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책의 해'에 마련되는 야심찬 기획들이 출판시장의 만성적 불황을 야기시킨 문화의 감각화·표피화를 심층적이고 정서적인 풍토로 일구어내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터이므로. 그래도 새해이므로 덕담을 빠뜨릴 수는 없다. 모쪼록 베스트북들이 의도적인 오보에 의해서라도 한번쯤은 베스트셀러의 순위를 메꿨으면 좋겠다. 살아남기 위해 출판사는 '악서'를 내고, 서점은 덤핑에 가까운 불량품을 파는 악순환의 고리가 한번쯤은 풀렸으면 좋겠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앞에서 양식과 품위를 들먹이는 말이 가소롭기 짝이 없겠지만, 수다한 직종 중 진즉부터 '사양산업'이었던 출판분야에 몸의 닻을 내린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방목시켰던 정신의 유목민들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좋은 책'과 共生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정화'라는 이름으로 모종의 권력으로써라도 '악서'를 솎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데, 출판계의 자정능력으로 '숙청론'을 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 벽두의 이 소박한 소망이 질책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판저널」을 비롯한 여러 신간정보지나 서평전문지들이 조금 더 많이 팔리면 또한 좋겠다.

——김중식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스페인어권에서 뿐 아니라 60년대 이후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는, 신 문화이론으로 회자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이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그의 책이 줄지어 출간되고 있는데, 서울대 김춘진교수가 번역한 「바벨의 도서관」(글)은, 「픽션」 「알렙」과 「논쟁」을 비롯한 보르헤스의 저서 중에서 20편의 글을 선정해 묶은 책. 보르헤스 문학의 전파자인 존 바스는 "소설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글쓰기 양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보르헤스가 발견하고 있다"고 전한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주목했던 보르헤스의 이 선집에 실린 '카프카와 그의 친구들'은, 한 작가를 읽어내는 그의 심미안을 보여주는 글로 여겨져 여기에 옮긴다.

한때 나는 카프카의 선구자들에 대한 검토를 계획했었다. 처음에, 나는 카프카를 수사적 찬사의 불사조처럼 유별나다고 생각했다. 빈번히 그를 접한뒤 나는 곧, 여러 시대의 다양한 문학 텍스트에서 그의 목소리나 습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그 몇가지를 시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번째는 운동에 대한 제논의 역설이다(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전해진다). A에 있는 운동체는 B점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두점 사이에 있는 중간을, 그에 앞서 중간의 중간을, 그리고 그 전에, 그 중간의 중간을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문제의 형식은 바로 「성」의 그것이며, 그래서 운동체와 화살과 아킬레스는 문학에 있어 최초의 카프카적 인물들이다. 책들 가운데 우연히 손에 잡힌 두번째 텍스트에서는, 그 유사성이 형식이 아니라 톤에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9세기 산문가 한유의 우화인데, 마르굴리에의 경탄할 만한 「중국문학 정선」(1948)에 들어 있다.(중략)

세번째 텍스트는 가장 쉽게 예상될 수 있는 원전에서 나온다.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저술들이다. 두 작가의 정신적 친연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가 알기로,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것은, 키에르케고르도 카프카와 마찬가지로 당대 부르주아지 테마에 종교적 비유를 많이 썼다는 사실이다. 루리는 자신의 「키에르케고르」(1938)에 두 가지 예를 옮겨 적고 있다. 하나는, 끊임없이 감시를 받으면서도 영국은행의 지폐를 연구하는 화폐위조범의 이야기이다. 같은 식으로, 신은 키에르케고르를 믿지 않으며, 바로 그가 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소명을 부여하였을 것이다. 또다른 이야기의 주체는 북극탐험대이다. 덴마크의 교구에서는 설교를 통해 그러한 탐험에 참여하는 것이 영혼의 영원한 건강을 위해 유익하다고 선언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고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며, 모두가 그런 모험에 뛰어들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다. 마침내는 어떤 여행이나-가령 뱃길로, 덴마크에서 런던까지-, 또는 합승마차의 일요산책도 좋게 생각하면 진정한 북극탐험이라고 공표했을 것이다. 네번째 예시는 1876년에 발표된 브라우닝의 「두려움과 조바심」이라는 시에서 발견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한 친구를 가졌거나, 또는 그렇다고 믿는다. 한번도 이 친구를 본적이 없고, 실제로 오늘에 이르도록 이 친구가 그를 도와준 적도 없지만, 사람들은 매우 고귀한 그의 성품에 대해 얘기하고, 진짜 편지들이 돌아다닌다. 그러한 성품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고, 필적학자들은 그 편지들이 가짜라고 확신한다. 시의 마지막 행에서, 그 사람은 묻는다. "그래서 만일 이 친구가 신이기도 하다면?"

아울러 두 개의 단편도 나의 이 노트에서 살펴보겠다. 하나는 레온 블로이의 「무례한 이야기들」에 있는 것인데, 지구의와 지도, 철도 안내서, 트렁크는 많이 가졌어도, 고향을 한번도 떠나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다룬다. 또 하나는 「카르카손」이란 제목이 붙여진, 던서니경의 작품이다. 무적의 전사대가 무한성을 출발해, 뭇 왕국을 제압하고, 괴물과 대적하며, 사막과 산중을 휩쓴다. 그러나, 때로 멀리 바라다보면서도, 결코 카르카손에는 도달하지 못한다.(이 얘기는, 쉽게 알 수 있듯이, 앞 얘기의 정반대이다. 앞의 예기에서는 한곳으로부터의 탈출이 불가능하고, 뒤의 얘기에서는 도달이 불가능하다.)

내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열거한 이질적 소품들은 카프카적이다. 내 말이 틀리지 않다면, 이들 모두가 서로 다 같지는 않다. 이 마지막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 그 각각의 텍스트에는 많건 적건 카프카적인 특질이 있다. 그러나 카프카의 작품이 없었더라면, 그것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말할 수 있다. 브라우닝의 「두려움과 조바심」은 카프카의 작품을 예고하지만, 카프카에 대한 우리의 독서는 브라우닝의 시를 세련되게 그리고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읽게 만든다. 브라우닝은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것을 읽지 않았다.(종략)

출판저널

통권 제119호 / 1993년1월5일 발행

발행인 —— 鄭鎭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羲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彦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愼鏞廈 安秉永
安輝濬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環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熺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飛鍾 鄭雲暎 鄭晋錫
鄭鎭弘 曺南鉉 曺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독자서평담당자」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